



제목	Rumi: Gazing at the Beloved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Inner Traditions
발행일	2003. 5. 30.
저자	Will Johnson
출판도시	Rochester
페이지수	224
ISBN 또는 ISSN	978-0892819584

**내용 요약**

수피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, 수피즘의 대가이자 수피 시인, 신비주의자, 세마춤의 창시자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루미가 1244년 샴스 타브리즈라는 유랑자를 만난 사건이 가장 특이한 사건 중에 한 개로 남아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미와 샴스는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. 샴스의 질문에 대한 루미의 답을 비롯하여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 두 사람은 당장 칩거에 들어가 석 달 뒤에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. 수피즘의 전통에서 루미와 샴스의 관계는 매우 존중받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,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, 샴스의 최후 행방 등에 관한 것은 루미 사후 7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.

『연인을 응시하는 루미』에서 이 책의 저자 존슨은 루미와 샴스의 관계를 시선으로 연결하는데, 시선은 이성이든, 동성이든 두 사람 사이를 최초로 이어주는 실질적·시적 수단이다. 스치거나 순간적으로 마주친 시선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고,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, 서로 사랑할 때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. 이런 맥락에서 존슨은 수피즘의 밀실 공간에서 몇 달 동안 함께 지낸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루미와 샴스의 삶을 한편으로는 광범위하게, 다른 한편으로는 면밀 주도하게 추적한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미의 시어와 산문집 단어를 포석으로 삼아 둘의 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한다. 결국 이 책의 저자 존슨은 루미와 샴스의 신성한 우정, 친밀한 파드너십, 신적인 결합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은밀한 비밀을 캔다. 그 과정에서 그는 수세기 전 루미와 샴스가 경험했던 황홀함을 현대인이 체험할 수 있는 관계를 제시한다.